

## 열대풍토병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다양한 연구

점증하는 국내 유입 열대병의 추세를 고려하고, 88올림픽을 대비하는 시점에서 사회나 정부의 열대풍토병에 대한 관심이 더 적극적이었으면 한다.



### 민 득 영

꽤 청한 6월 11일 오전, 연세대학교의 고(故)장 기원교수를 기리기 위한 기념관복도는 많은 사람들로 붐볐다.

연세대학교 열대의학연구소(소장: 의대 기생충학 이 근태교수)가 주최하는 제 18차 열대의학세미나(1987년 6월 11일~13일)에 참석하기위해 등록을 하느라 붐비고 있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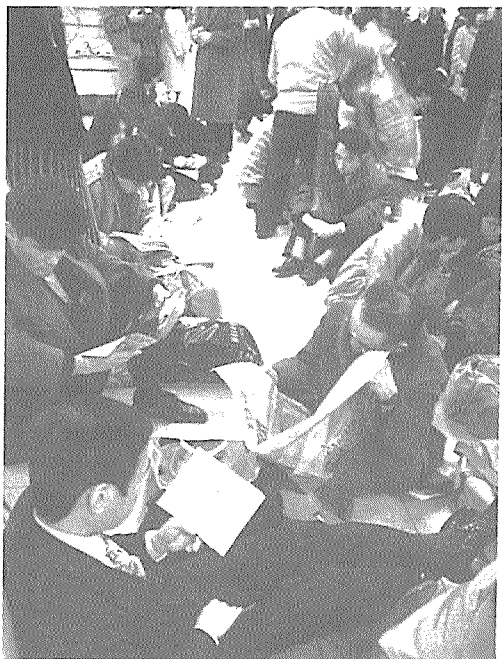
열대의학세미나는 1969년에 시작되어온 소규모의 열대병관계 국제세미나이다. 첫세미나이래 지금은 정년으로 퇴임하신 소 진탁교수(연세의대 명예교수)가 연구소장직을 맡아오다 근래

정년후 이 근태교수가 소장직을 맡아 그 업적을 계승하고 있다.

열대병은 이제 우리 주변에서 그렇게 생소한 것은 아니다. 이미 연세대학교 열대의학연구소의 폭 넓은 활동의 보람도 있었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해외나들이를 다짐으로써 그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해외건설붐을타고 진출한 많은 근로자들이 겪었던 현지에서의 상황은 열대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없었던 열대병을 현지지역에서 앓았거나 귀국하여 앓았던 예를 들면 말리리아를 위시하여, 이질아메바증, 주혈흡충증, 피부리슈마니아증, 도노발리슈마니아증, 로아사상충증, 광동주혈선충증 등

이 있으며 이외에도 꽤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말라리아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에 이미 박멸되었다가 최근에 다시 유입됨으로써 우리나라에 또다시 말라리아의 유행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어 매우 심각한 질병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형편을 생각할 때 열대병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고 또 토론하여 어떠한 관리나 예방, 치료지침을 마련하는 것을 매우 중요한 것으로 연세대학교 열대의학연구소의 업적은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금번 제 18차 세미나에도 중국, 일본,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등 동남아세아 각국을 비롯하여 미국,



스위스, 캐나다, 우간다, 세계보건기구(WHO) 및 우리나라 등 13개국에서 100여명이 참석하여 원충성질환에 대한 연구발표 및 토론이 있었다.

오전 9시 30분에 이 근태 연구소장겸 조직위원장의 개회사에 이어 안 세희 연세대학교 총장의 환영사, 이 해원 보건사회부장관(유 원하 보건국장대독), 한 상태박사(WHO 서태평양지역 부처장) 및 문 태준 대한의학협회회장의 축사가 있었고 끝이어 기념촬영이 있었다. 오전 학술강연은 한국(소진탁교수 발표), 말레이시아(Kan 교수발표), 인도네시아(Oemijati 교수발표), 태국(Migasena 교수발표), 대만(Yen 교수 발표) 등지에서의 원충성질환의 역할

에 대한 발표가 있었고, 점심 후에는 말라리아에 대한 연구 발표와 패널토의가 있었다. WHO 서태평양지역에서 활동하시다 최근에 귀국한 백영한교수(경희의대)의 동아시아 및 대양주에서의 말라리아 최근동향을 위시하여 역학, 면역, 치료 등에 대한 발표중 근래에 점증하고 있는 클로르퀸내성말라리아에 대한 Lasserre교수의 교대치료방법 및 예방적투약에 관한 제시는 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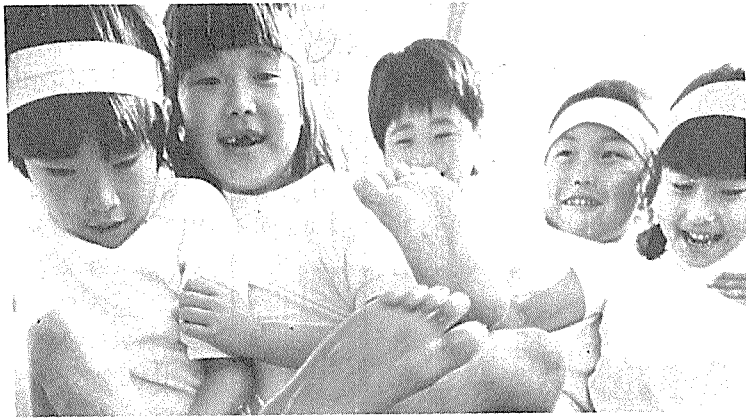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 위생은 물론 해외에서의 자기건강 관리가 중요하며, 모든 해외 출입항에서의 완벽한 검역 및 방역 체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리나라 입장에서 앞으로 시도되어야 할 방법으로 생각되었다. 특히 소 진탁교수는 국내의 말라리아는 근절된 것으로 생각되나 국외로부터 유입되는 것이 매년 늘어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어 앞으로 임상가들에게도 일조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오후 말라리아에 대한 패넬토의에서 유 효석박사 (국립보건원) 의 말라

국가적 차원에서의 말라리아관리를 위한 문제점 (경희의대 백 영한교수)들이 토의되었는데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위생은 물론 해외에서의 자기 건강관리가 중요하며, 모든 해외출입항 (공항, 항구)에서의 완벽한 검역 및 방역체제가 이루어져야만 88올림픽을 맞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제 2일째 (12일)는 주로 수인성원충



▲우리나라의 경우 대체로 개인 위생상태가 불완전한 영아원이나 고아원에서 램블편모충의 감염율이 70%이상인 경우가 있음이 보고되어, 개인 위생이나 식수관리의 철저가 강조되었다.

리아의 생물학적 관리에 대한 발표중 우리나라의 송사리 등 민물고기의 일부는 말라리아를 매개하는 학질모기외 애벌레를 잡아먹음으로써 매개체의 생물학적 관리의 가능성을 제시하여 이 방면에서의 연구관심을 나타내었다. 이외에 매개근충인 학질모기에 대한 통합적 관리대책 (연세의대 이 한일교수), 약물투여방법 (스위스 Lasserre 박사), 국민보건교육 (연세의대 김 명호교수),

성질환에 대한 발표 및 토의가 있었는데, 특히 불완전한 식수, 하수, 지표수, 지하수 등 물로 인해 전파되는 원충중 이질아메바의 램블편모충에 대한 것이 많았다. 소 진탁교수는 램블편모충에 대해 소개하였으며, 양 용진박사 (카나다 토론토대학)는 북아메리카에서의 수인성원충을 개괄하여 발표하였는데 특히 램블편모충은 보충자의 대변이 산악이나 구릉지대에 오염되어 빗물이나 지

표수에 다시 오염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어 설사나 복통을 일으켰음을 상기시켰다. 우리나라에서도 대체로 개인위생상태가 불완전한 영아원이나 고아원에서 람블편모충의 감염율이 70% 이상 때로는 거의 전원이 감염된 경우도 있음을 이 근태교수는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수인성원충성질환에 대한 발표토의에서 역시 개인위생과 식수관리의 철저, 여행자의 건강관리 등이 강조되었다.

발라리아나 수인성원충성질환외에도 여러 원충성질환들이 발표논의 되었는데 특히 뉴모시스티스페염 (Pneumocystis carinii pneumonia)과 크립토스포리디움(ryptosporidium)감염은 최근 전세계를 공포에 몰아 넣고 있는 후천성면역부전증 (AIDS)과 관련성이 높아 관심을 끌었다. 위의 두가지 원충성질환은 정상아 또는 정상인에서는 거의 볼 수 없고 면역상태가 떨어져있는 상태에서 주로 감염이 되는 것이지만 AIDS에서는 면역부전에 의해 60% 이상 이 두가지 원충중 하나에 감염되는 것

으로 발표되었다 (카나다, 양 용진박사). 우리나라의 경우 뉴모시스티스페염은 주로 영아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발표되었다(국립의료원 안돈희박사). 이상외에 고기나 우유 등에서 옮겨지는 톡소플라스마증 (Toxoplasmosis gondii), 자유생활아메바에 의한 안질환, 말레이사상충증, 인수공통원충 및 매독진단을 위한 혈청검사법 등이 발표되어, 실제로 많은 열대병에 관해 발표토의되었다.

마지막날(13일)은 많은 세미나참석자들이 수원의 민속촌을 방문하여 세미나로 인해 열기를 띄었던 분위기를 식히고 참석자간의 친교를 맺는 기회를 갖고서 폐막하였다.

필자는 오랫동안 열대의학세미나에 직접 관여하여 참석하는 중 점증하는 국내유입 열대병의 추세를 고려하고 88올림픽을 대비하는 시점에서 사회나 정부의 관심이 더 적극적이었으면 하는 바람을 항상 갖는다.

<필자=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기생충학 교실>

## 생활정보

### ● 식초를 이용한 주방용품 세척

보통 가정에서 사용하는 식초에는 초산이 4% 들어 있다. 이 식초를 세제 용으로도 사용한다.

알루미늄용기는 산성에 강하나 물만

끓여도 까맣게 변할 정도로 알칼리에는 약하다 그러므로 까맣게된 알루미늄 용기를 깨끗이 하기 위해 식초물로 끓여내든지 산성의 음식(잼, 주스종류)을 알루미늄용기에 넣고 끓이면 깨끗하게 된다.

음식이 있는 유리컵이나 용기에 붙은 석회물은 식초로 닦아내다.